

근로여건이 임금노동자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옥현민*, 박민정**, 조민수***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결혼한 맞벌이 임금노동자 부부 1,056쌍을 대상으로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진행하여 이혼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로는 1998년(1차) ~ 2021년(24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에 관련된 변수 중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남편의 초과근무 여부와 남편의 전일제 여부가 이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약 6.7%의 이혼 확률 증가가,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약 4.8%의 이혼 확률 증가가 있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개인근로소득, 가계의 자산과 부채, 자가 거주여부가 이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중 근로시간과 고용조건이 이혼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이혼, 생존분석, 근로시간, 초과근무, 고용조건

1. 서론

이혼의 증가와 그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서의 육아는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기에 이혼은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이혼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Leopold(2018), 장은경·최희정(2017), Huurre et al(2006), 이설아 외(2021), 윤명숙 외(2012), Dupre et al(2015), 박현정·정익중(2012)와 같이 이혼이 당사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소득변화, 심근경색, 우울감, 자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혼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jadex4@uos.ac.kr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parkmk9821@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mscho616@gmail.com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혼 자체에 대한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혼은 문화, 경제, 근로 여건, 부부의 국적, 교육수준, 자녀의 유무, 혼전임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나(Kalmijn et al(2004), 김송희·김진영(2016)), 본 연구는 노동이 일상적인 행동이나 건강 등 노동자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신한열(2019), Ahn(2016), Cygan-Rehm·Wunder(2018)) 근로여건,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과 고용조건을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해외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반해, 아직 한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노동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른 국가와 분석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Johnson IV(2004)은 미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이혼을 야기하는가를 살폈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더 이혼이 잘 일어남과 남편의 근로시간과 달리 아내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이혼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Poortman(2005)은 네덜란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남편의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이혼이 일어나기 쉬움을 보였으며, 반대로 아내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이혼이 일어나기 쉬움을 밝혔다. 재정(financial) 문제가 있는 경우와 부부가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또한 이혼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생존분석을 이용한 이혼 연구 또한 진행되었는데, Landfeldt et al(2018)은 생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노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이 남성의 이혼 위험을 증가시키나 여성의 이혼 위험은 증가시키지 않음을 보였다.

생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국내연구로는 홍백의 외(2009)와 양은모·배호중(2017), 김송희·김진영(2016), 우해봉(2011) 등이 존재한다. 홍백의 외(2009)는 1998년(1차) ~ 2007년(10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여 결혼지속 기간이 연령, 학력, 소득 등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양은모·배호중(2017)은 한국노동패널 2000년(3차) ~ 2014년(17차)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0년 이후) 혼인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에 초점을 두고 재무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김송희·김진영(2016)은 '혼전임신'이 배우자 탐색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혼과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였다.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 ~ 2009년(12차)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이혼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우해봉(2011)에서 노동시장 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 지적되었으나 해당 요소를 중점적으로 본, 다시 말해 이혼을 야기하는

근로여건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분석자료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여건에 대하여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한국노동패널(1998년(1차) ~ 2021년(24차))을 활용하여 맞벌이 임금노동자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어떤 근로여건이 이혼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은 24차 조사기준 63.2%의 높은 원표본유지율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자료이다. 또한, 해당 조사가 노동을 중심으로 하여 설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질문인 ‘어떠한 근로여건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사료됨에 따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론으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구체적인 분석모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다. 생존분석은 사건의 발생에 걸리는 시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혼인상태 및 혼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김성준(2015), 홍백의(2009), 배호중 외(2020))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이 이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이혼할 확률은 6.7% 증가하며,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이혼할 확률은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초과 근무 여부가 이혼할 확률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남편의 전일제 근무는 이혼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관련된 변수들 외에도 남편과 아내의 개인근로소득, 가계의 자산, 자가거주 여부가 이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분석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분석자료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98년(1차) ~ 2021년(24차)의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패널조사의 경우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증시되는데, 한국노동패널 유지가이드에 따르면, 24차(2021년도)까지 원 표본 유지율은 63.2%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종단면조사인 한국노동패널이 분석에 이용하기 적합하다. 또한, 여타 조사보다 노동에 대한 문항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질문인 ‘어떠한 근로여건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됨에 따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표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1970년 이후에 결혼한 임금노동자 부부 1,056쌍이다.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결혼 당시 연령은 만 18세 ~ 49세로 한정하였으며, 1970년 이후에 결혼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혼’과 ‘재혼’이 이질성이 있음에 따라, ‘초혼’에 대한 이혼 및 별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 별거를 동일개념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¹⁾

패널조사가 시작된 연도인 1998년 이전 혹은 조사 진행 중에 결혼한 부부 중, 패널조사가 진행 중인 199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혼한 부부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조사기간 종료까지 결혼이 유지된 경우, 우측중도절단(Right Censoring)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닌 부부라는 점과 가구주 이외의 경우 가구와 관련된 변

1) 이혼이라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이혼과 별거를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이유는 우해봉(2011), 홍백의 외(2009)와 같이, 이혼에 관련된 연구들이 두 개념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을 남편이나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만 한정하였으며, 표본의 동질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혼한 부부와 이혼하지 않은 부부로 나눌 수 있다. 분석모형이 시간가변 공변량을 고려하지 않는 모형임에 따라, 자료 사용 시점의 선정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본 연구는 홍백의 외(2009)에서 사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경우 그 직전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 종료까지 결혼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마지막 조사년도인 24차년도(2021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방식은 이에 따라 총 1,056쌍의 부부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이 중 이혼 및 별거를 겪은 부부는 39쌍, 결혼을 유지한 부부는 1,017쌍이다.

3.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생존분석임에 따라, 종속변수인 생존기간(결혼기간)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연도에서 결혼연도를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24차년도(2021년)까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혼기간은 2021년에서 결혼연도를 차감하여 산출되었다.

나. 독립변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녀 유무와 같은 ‘가구구성 특성’, ‘경제적 특성’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주요 관심 변수가 ‘노동’에 관련된 변수이나, 이혼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임을 미루어볼 때, 다른 변수들을 누락시키면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크게 발생하여 노동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양은모·배호중(2017)은 가구의 부채가 이혼의 가능성을 높임을 확인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 및 연령차이,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용우(2021)에서 자녀수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Rotz(2016)는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혼율이 내려간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에 관련된 변수들을 관심변수로, 선행연구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 변수들을 인구사회학적, 교육, 가구구성, 경제적 변수로 구분하고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

함시켰다. 노동에 관련된 변수로는 근로시간과 고용조건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근로시간과 관련된 변수인 남편과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편과 아내의 초과근무 여부와 고용조건에 대한 변수인 남편과 아내의 전일제 여부와 정규직 여부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양은모·배호중(2017), Rotz(2016)에서 이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령을 포함시켰다.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은 중졸미만, 고졸이하, 대졸이상의 세 구간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에서는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가구구성 변수로는 홍백의 외(2009)에서 사용된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변수로는 양은모·배호중(2017)과 홍백의 외(2009)를 참고하여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가구 부채, 자산을 로그화하여 포함시켰으며, 자가거주 여부 또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표 1>에 정리되어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결혼기간	이혼한 경우, 이혼년도 - 결혼연도 (단위 : 년) 이혼하지 않은 경우, 2021년 - 결혼연도 (단위 : 년)
	남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 아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며 (단위 : 시간)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며 (단위 : 시간)
노동 변수	남편 초과근무 여부	초과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 초과근무 여부	초과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남편 전일제 여부	전일제 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 전일제 여부	전일제 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남편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근무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편 결혼연령	결혼연도 - 출생연도
	아내 결혼연령	결혼연도 - 출생연도
교육 변수	남편의 중졸미만 여부	남편의 학력이 중졸미만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의 중졸미만 여부	아내의 학력이 중졸미만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남편의 고졸이하 여부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의 고졸이하 여부	아내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가구구성 변수	남편의 대졸이상 여부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아내의 대졸이상 여부	아내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경제적 변수	미성년 자녀 유무	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ln(남편 월평균 근로소득)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단위 : 만원)을 로그화
	ln(아내 월평균 근로소득)	아내의 월평균 근로소득(단위 : 만원)을 로그화
	ln(가구 부채)	가구의 부채(단위 : 만원)을 로그화
	ln(가구 자산)	가구의 자산(단위 : 만원)을 로그화
	자가거주 여부	자가거주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 24차 조사.

표본: 1970년 이후 결혼한 1,056쌍의 임금노동자 부부

III. 분석방법론

1. 생존분석

생존분석은 본래 의료통계와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 약물의 효과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생물의 생존기간과 같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생존분석은 성낙일(2021)과 같이 기업의 폐업까지 걸리는 기간과 같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김성준(2015), 홍백의(2009), 배호중 외(2020)에서도 채택하여, 결혼과 이혼에 걸리는 시간 및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연구질문인 ‘어떠한 근로여건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답하는데에 있어 적절한 방법론이라 생각된다.

생존기간이라는 변수를 T , 관찰된 생존기간의 값을 t 로 나타내면, 생존함수 $S(t)$ 는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t)$ 는 시점 t 이후에 결혼이 지속될 확률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시점 t 까지 사건이 발생할, 즉 이혼이 발생하는 확률 $F(t)$ 를 누적확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1에서 $S(t)$ 를 차감한 값이다.

$$S(t) = \Pr(T \geq t) \tag{1}$$

2. Cox 비례위험모형

본 연구는 분석 모형으로 생존분석 모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은 준모수적 생존분석 방법론으로 위험함수($h(t | x)$)에 대해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위험함수를 추정해나가는 생존분석이다. 위험함수는 $t-1$ 기까지 생존한 표본들이 t 기에 사건을 겪을 확률(본 연구에서는 이혼할 확률)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2)와 같다.

$$h(t | x)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t \leq T < t + \Delta t | T \geq t, X = x)}{\Delta t} \tag{2}$$

수식 (2)에서 T 는 생존시간이며, x 는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공변량이다. Cox 비례위험모형은 수식 (3)와 같이 표현되며, $b = (b_1, \dots, b_p)'$ 는 공변량 벡터 $x = (x_1, \dots, x_p)'$ 에 대응되는 계수를, $h_0(t)$ 는 모든 공변량의 값이 0일 때 t 시점에서의 위험함수로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라 부른다.

$$h(t | x) = h_0(t) \exp\left(\sum_{j=1}^p b_j x_j\right) = h_0(t) \exp(b' x) \quad (3)$$

수식 (4)를 통해, Cox 비례위험모형은 시간에 따라 어떤 변수의 위험비(Hazard ratio)가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 위에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수식 (4)는 공변량 x_1 이 z_1 과 z_2 로 서로 다른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위험비가 기저위험함수($h_0(t)$)와 시점(t)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rac{h(t | x_1 = z_1)}{h(t | x_1 = z_2)} = \frac{\exp(b_1 z_1)}{\exp(b_1 z_2)} \quad (4)$$

Cox 비례위험모형의 핵심적인 가정인 비례위험 가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캐플린-마이여 곡선의 교차, Schoenfeld 잔차 검정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Ng'andu, 1997). 본 연구에서는 Schoenfeld 잔차 검정을 유의수준 0.05에서 진행하여 비례위험 가정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IV. 분석결과

1. 요약통계량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보여준다. 더미변수의 평균값은 해당 더미변수가 1의 값을 갖는 경우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남편 초과근무 여부’ 변수의 평균 0.176는 남편이 초과근무를 하는 표본이 전체 분석 표본 중 17.6%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다른 더미 변수들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표 2> 요약통계량 (N = 1,056)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종속변수	결혼기간 (단위 : 년)	19.168	11.110	50	1
	남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43.010	8.497	98	6
	아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38.129	9.899	108	3
노동 변수	남편 초과근무 여부	0.175	0.380	1	0
	아내 초과근무 여부	0.072	0.259	1	0
	남편 전일제 여부	0.972	0.166	1	0
	아내 전일제 여부	0.801	0.399	1	0
	남편 정규직 여부	0.882	0.323	1	0
	아내 정규직 여부	0.778	0.416	1	0
교육 변수	소속 직업 차이 여부	0.772	0.420	1	0
	남편의 중졸미만 여부	0.028	0.166	1	0
	아내의 중졸미만 여부	0.035	0.184	1	0
	남편의 고졸이하 여부	0.363	0.481	1	0
	아내의 고졸이하 여부	0.400	0.490	1	0
	남편의 대졸이상 여부	0.609	0.488	1	0
인구사회학적 변수	남편 결혼연령	29.492	3.945	48	19
	아내 결혼연령	27.043	4.023	45	18
가구구성 변수	미성년 자녀 유무	0.586	0.493	1	0
	ln(남편 월평균 근로소득)	5.804	0.513	6.909	2.398
	ln(아내 월평균 근로소득)	5.295	0.586	6.868	3.045
경제적 변수	ln(가구 부채)	4.864	4.521	12.346	0
	ln(가구 자산)	7.607	2.361	11.019	0
	자가거주 여부	0.696	0.460	1	0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 24차 조사.
 표본: 1970년 이후 결혼한 1,056쌍의 임금노동자 부부

2. 생명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을 배제하고, 시간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의 첫번째 열은 결혼기간을 5년 단위로 분류한 구간이며, 두번째 열은 해당 구간 초기에 이혼 및 절단되지 않은 총 부부 수를 나타낸다. 세번째 열과 네번째 열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이혼 및 절단 수를 나타낸다. 다섯번째 열은 생존율로 해당기간 말에 전체 표본에 대비하여 결혼을 유지한 부부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존율의 계산에 있어, 절단된 표본들 또한 고려된다. 여기서는 구간의 중간에 절단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초기에 위험률(이혼할 확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명표

결혼기간 구간 (단위 : 년)	구간 초기 총 부부 수	이혼	절단	생존율
1 ~ 6	1,056	12	122	0.9880
6 ~ 11	932	5	132	0.9823
11 ~ 16	795	7	177	0.9726
16 ~ 21	611	9	166	0.9560
21 ~ 26	436	1	132	0.9534
26 ~ 31	303	4	123	0.9376
31 ~ 36	176	0	85	0.9376
36 ~ 41	91	0	45	0.9376
41 ~ 46	46	1	25	0.9096
46 ~ 51	20	0	20	0.9096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 24차 조사.

표본: 1970년 이후 결혼한 1,056쌍의 임금노동자 부부

3.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앞 절에서 시간이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혼은 시간 뿐 아니라, 노동 관련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본 절에서는 생존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요인들, 특히 그 중에서 노동 관련 요인이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이혼을 야기하는가를 확인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노동에 관련된 변수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그 이후,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여 앞서 분석한 결과가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도 설명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표 4>에서 제시되는 6개의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1,056쌍으로 모두 동일한데, 그 중 분석모형 (1) ~ (3)은 노동 변수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분석결과이며, (4) ~ (6)는 노동 변수를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5)와 (6)에서 사용된 변수 중 ‘미성년 자녀 여부’ 변수는 비례위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층화(Stratified)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Schoenfeld 잔차 검정 결과, 분석 모형들은 0.05 유의수준에서 비례위험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안의 값들은 위험비(Hazard Ratio)로, 대조군과 대비한 이혼 발생 확률을 의미한다. 1보다 높은 위험비는 해당 변수가 이혼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을, 1보다 낮은 위험비는 해당 변수가 이혼 발생 확률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형 (1)에서 남편 주당 근로시간의 위험비

1.067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때, 주당 근로시간이 1단위 늘어나면 이혼 발생 확률이 6.7% 높아짐을 의미한다.

노동 관련 변수 중 근로시간에 관련된 변수만을 분석에 포함한 모형인 (1)에서 보았을 때, 남편의 근로시간과 아내의 근로시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혼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표본을 이용하여 남편의 근로시간과 달리 아내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이혼이 야기함을 확인한 Johnson IV(2004)의 분석결과와 상이하다. 또한, 네덜란드의 표본을 이용하여, 남편의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아내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이혼이 일어나기 쉬움을 밝힌 Poortman(2005)의 분석결과와도 상이하다. 이렇듯, 국가간 차이로 인해 근로시간은 이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한 국가의 분석결과를 다른 국가의 경우에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따름을 알 수 있다.²⁾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고용조건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 보았을 때, 정규직, 전일제 등의 고용조건 중 이혼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없었다. 근로시간과 고용조건을 함께 고려한 모형 (3)의 분석결과, 고용조건과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고용조건만을 고려하였을 때와 달리, 남편의 전일제 여부가 이혼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결과가 통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도 설명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교육 등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형은 (4) ~ (6)인데, 노동 관련 변수들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모든 모형에서 노동 관련 변수들 중 남편과 아내의 근로시간, 남편의 초과근무 여부가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 자산, 근로소득 등의 경제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을 때는, 남편의 전일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전일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편과 아내의 정규직 여부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홍백의 외(2009)와 같이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의 중졸미만 교육수준과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은 기준인 고졸이하 교육수준에 비하여, 이혼을 야기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혼율이 내려간다고 주장한 Rotz(2016)의 분석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결혼 연령은 이혼율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으며 계수 또

2) Cooke et al(2013)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내의 노동이 이혼을 야기하는가를 확인하였고, 미국의 정책적 보조의 부재로 인하여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서 아내의 노동이 이혼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이혼을 늘리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홍백의 외(2009)와 양은모·배호중(2017)에서 결혼지속에 있어 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함이 지적되었는데,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혼을 줄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양은모·배호중(2017)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가구의 부채는 이혼율을 높이는 변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가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혼을 줄이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홍백의 외(2009)와 상이한 분석결과이다.

<표 4>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구분	변수명	(1)	(2)	(3)	(4)	(5)	(6)
노동	남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67***		1.067***	1.069***	1.064***	1.054***
	아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48***		1.060***	1.060***	1.066***	1.067***
	남편 초과근무 여부	3.550***		4.185***	4.347***	3.892***	4.890***
	아내 초과근무 여부	0.596		0.598	0.609	0.601	0.682
	남편 전일제 여부		0.499	0.122***	0.119***	0.093***	0.828
	아내 전일제 여부		1.713	0.532	0.600	0.590	1.165
	남편 정규직 여부		0.850	0.857	0.887	0.871	0.995
	아내 정규직 여부		1.291	1.157	1.012	0.994	1.790
교육	남편의 중졸미만 여부				0.699	1.050	0.290
	아내의 중졸미만 여부				1.030	1.056	2.593
	남편의 대졸이상 여부				0.592	0.581	1.081
	아내의 대졸이상 여부				1.435	1.193	2.537*
인구사회학	남편 결혼연령					0.960	0.951
	아내 결혼연령					1.010	1.058
가구구성	미성년 자녀 여부					증화	증화
경제	ln(남편 월평균 근로소득)						0.419***
	ln(아내 월평균 근로소득)						0.163***
	ln(가구 부채)						1.061
	ln(가구 자산)						0.858***
	자가거주 여부						0.497*

표 안의 값은 위험비(Hazard Ratio)임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 24차 조사
 표본: 1970년 이후 결혼한 1,056쌍의 임금노동자 부부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근로여건에 집중하여,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여건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요인임에 따라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고용조건 등 노동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임금노동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이 이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이혼할 확률은 6.7% 증가하며, 아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이혼할 확률은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초과 근무 여부가 이혼할 확률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43개국 중 4번째로 길며, OECD 평균인 1,659시간보다 약 15.3% 높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이 결혼생활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

둘째,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남편의 전일제 근무는 이혼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관련된 변수들 외에도 남편과 아내의 개인근로소득, 가계의 자산, 자가거주 여부가 이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전일제 여부, 남편과 아내의 정규직 여부는 이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고용조건 보다는 고용시간과 경제적인 여건들이 결혼지속을 설명함에 있어 유의함을 짐작할 수 있다. 김성준(2015), 배호중 외(2020)에서는 결혼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는데,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혼인 뿐 아니라 결혼 지속에 있어서도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정책이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의 대표인 주 52시간제가 임금근로자의 이혼율에 감소에 기여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이 비전일제가 아닌 전일제일 경우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볼 때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이혼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혼율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로는, 첫째,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임금노동자 부부로 한정되어있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에서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6% 이상을 차지하나(통계청(2022)),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가 모든 부부의 이혼을 설명하는 일반화된 결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지혜(2015)에서 지적하였듯이, 이혼

3) OECD (2022), Hours worked (indicator).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Accessed on 14 September 2022)

에 있어서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가치관으로 대표되는 ‘가정 내 요인’과 경제상태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대표되는 ‘가정 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 외 요인’, 그 중에서도 ‘노동’에 관련된 변수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가정 내 요인’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혼이 어떠한 특정한 요소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회현상임에 따라 향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선행연구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57-81.
- 김송희·김진영(2016). 「혼전임신의 이혼에 대한 영향 고찰」. 『응용경제』, 18(1), 109-138.
- 박현정·정익중(2012). 「이혼· 별거 전후의 소득변화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논총』, 28, 203-232.
- 배호중·강시은·한창근(2020). 「첫 일자리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4 년제 대졸자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93-124.
- 성낙일(2021).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소매업체의 생존 및 폐업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조직연구』, 29(1), 1-41.
- 신한얼(2019). 「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은모·배호중(2017). 「신혼가구의 재무상태와 이혼: 부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1), 23-53.
- 오지혜(2015). 「한국 기혼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1), 233-270.
- 우혜봉(2011). 「한국인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이혼 패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4), 139-163.
- 윤명숙·이묘숙·김남희·정향숙(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 이설아·전혜정·주수산나(2021). 「이혼이 성인 남성과 여성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3(2), 66-88.
- 이용우(2021). 「자녀가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보』, 28(2), 201-230.
- 장은경·최희정(2017). 「이혼이 중년남녀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득, 우울감,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5(3), 1-23.
- 통계청(2022).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한국노동연구원(2022). 1-24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유저가이드(학술대회용 자료)
- 홍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2009).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307-328.
- Ahn, T (2016). "Reduction of working time: Does it lead to a healthy lifestyle?." *Health economics*, 25(8), 969-983.
- Cooke, L. P., Erola, J., Evertsson, M., Gähler, M., Härkönen, J., Hewitt, B., ... & Trappe, H. (2013). "Labor and love: Wives' employment and divorce risk in its socio-political context." *Social Politics*, 20(4), 482-509.
- Cygan-Rehm, K., & Wunder, C. (2018). "Do working hours affect health? Evidence from

- statutory workweek regulations in Germany." *Labour Economics*, 53, 162-171.
- Dupre, M. E., George, L. K., Liu, G., & Peterson, E. D. (2015). "Association between divorce and risks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8(3), 244-251.
- Huurte, T., Junkkari, H., & Aro, H. (2006). "Long - term Psychosocial effects of parental divorc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6(4), 256-263.
- Johnson IV, J. H. (2004). "Do long work hours contribute to divorce?." *Topic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4(1), N_A-23.
- Kalmijn, M., De Graaf, P. M., & Poortman, A. R. (2004). "Interactions between cultur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divorce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75-89.
- Landfeldt, E., Castelo-Branco, A., Svedbom, A., Löfroth, E., Kavaliunas, A., & Hillert, J. (2018). "The long-term impact of multiple sclerosis on the risk of divorce." *Multiple sclerosis and related disorders*, 24, 145-150.
- Leopold, T. (2018).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A study of multiple outcomes." *Demography*, 55(3), 769-797.
- Ng'andu, N. H. (1997). "An empirical comparison of statistical tests for assessing the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of Cox's model." *Statistics in medicine*, 16(6), 611-626.
- OECD (2022). Hours worked (indicator). (Accessed on 16 September 2022)
- Poortman, A. R. (2005). "How work affects divorce: The mediating role of financial and time pressures." *Journal of family issues*, 26(2), 168-195.
- Rotz, D. (2016). Why have divorce rates fallen?: The role of women's age at marriag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1(4), 961-1002.